

## 다산포럼

김정남



## [ 오피니언 ]

“부패한 자는 결코 자유인이 될 수 없단다”고 누가 말했던가. 지난 2월, 이명박 정부의 첫 내각 구성을 보면서 그 말이 과연 진리인 것을 알았다. 10년 만의 정권교체하면서 그렇게 요약하게 펴들었으나, ‘을스타 코리아’까지는 아니더라도, ‘통합과 전진’의 모양새는 갖출 줄 알았다. 그러나 고작 이 것밖에 안되느냐 싶어, 살아온 방식이 그만그만한 ‘끼리끼리’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고 말았다.

많은 사람들은 그 도덕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잘할 줄 알았다. 막혔던 것이 뚫리고, 민족 진운의 새봄이 활짝 열리는 줄 알았다. 유능하니까. 그러나 정권의 인수과정과 정부구성, 그리고 총선국면을 거쳐 나오면서 이명박 정부에 걸었던 국민의 희망과 기대는 불안과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겨우 한 달 남짓도 안 돼 불안과 실망이 너무 빨리 오고 있는 것이다.

당선자 시절, 이미 약속되었던 민주노총 방문을 그 위원장이 경찰의 출두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일정을 취소했다. 당선자도, 그리고 일부 언론도 그러한 결정이 매우 잘된 것으로 포장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 당선자라면, 예

오르면 태고 온 땃목을 버려야 하듯이, 당선되기 이전까지의 ‘나’를 버리고, 더불어 함께 할 ‘우리 모두’를 생각해야 한다.

총선 후보의 공천과정은 국민을 더욱 불안과 실망으로 몰아넣고 있다. 공심위니 개혁공천이니 하는 것은 그 모두가 ‘이명박 당’을 만들기 위한 솔수요 속임수에 지나지 않았다. 민주화와 산업화의 여세를 몰아 선진화로 가자더니, 교묘한 방법으로 민주화세력을 탈락시켰다. 영호남이 화합하여 국민통합으로 가지더니 슬그머니 호남을 버렸다. 노장정(老壯青)하자더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가야 할 길은 과거의 단순회귀가 아니라, 개발시대와 그 이후 10년을 통합하고 뛰어넘어 세계 속의 새로운 한국을 창조해 나가는 일이다. 남북관계도 과거의 냉전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설득하여 한 차원 높은 한민족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반대의 길로 가는 것만이 잘하는 일이 아니다.

누구의 지도자론인지 모르겠으되, 머리의 좋고 나쁨과 부지런하고 게으름의 조합에 따라 지도자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최상의 지도자는 머리는 좋지만 게으른 지도자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머리 좋고 부지런한 지도자를 되지 않는가 싶은데, 그래서 그런 지 만기친립이요, 가는 곳, 하는 일마다 소리만 크다.

공무원은 물론 국민도 벌써부터 피곤하다. 중용이 없고 신중함이 없으며 겸손함이 없다. 미국발 경제위기, 물가불안, 북한의 시험 등 넘어아 할 파도는 높은데, 과연 이명박 정부가 잘해낼 수 있을지 국민은 불안하다. 정부 산하기관 임원 문제에서 보듯이 하는 짓마다 말만 많고 서투르니, 더욱 그렇다.

〈언론인·다산연구소 제공〉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누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가

정대로 찾아가 만나서 “한 가지만 먼저 총고하겠다. 경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아달라. 법을 지키면서, 대화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자”고 호소했다라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지만, 정치란 다양

한 계층의 서로 상충하는 권익을 공동선(共同善)의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는 역할이요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치의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 그러기에 대통령은 당선된 그 순간부터, 내전 내전을 떠나야 한다. 모두를 포옹해야 한다. 불가에서 해탈의 괴안에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NGO 칼럼

이희한



“3월 17일 생쥐가 나온 새우깡, 3월 19일 참치통조림에서 칼날 발견, 3월 23일 모짜렐라 치즈에서 다이옥신 발견, 3월 23일 미국산 냉동 야채에서 냉동 생쥐, 3월 25일 뺨에서 지렁이 발견 의심.”

이전에도 식품안전사고가 터지곤 했지만 한 달도 되지 않은 동안 연이어 터진 이번 사건들은 식품안전 불안사태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소비자로선 어떤 면을 거리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을지 공황상태에 빠져있다.

고인 팔에게 물었다. “넌 이제 새우깡 사 먹을 때 어떻겠나?” 답은 의외였다. “난 그냥 그자 그래, 별 상관없어.”

소비자의 선택에는 힘이 있음을 깨닫

## 식품안전 불안 사태, 소비자의 선택은?

집에서 밥 먹을 때 국 속에 빠진 엄마의 머리카락 정도 빼내는 정도로 생각하는 듯했다. 내 딸만 그럴까? 너무도 의아했지만 임시전쟁 속에 있는 특별한 저지니하면서도 영 속상했다.

남편의 대답도 시원치 않다.

“당분간 사먹지 않겠지, 그러나 감정이 수그러지고 충격적이어서면 또 잊어버리고 먹고 말거야.”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않겠느냐는 나의 말에는 “그런 것들은 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에서 해야 하는 거라고 보통 생각하지”라고 답한다. 안전한 먹을거리, 친환경농물을 중심으로 한 윤리적 소비운동을 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이 가지는 적극적인 의미를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큰 벌을 느끼게 된다.

내 가족에서 갈리는 의견처럼 이번 사태를 맞이하는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사실을 기업 또한 너무도 잘 안다.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면 이들의 대응도 며칠이나 몇 달만 임기 응변으로 처리하고 말 것이다.

〈빛고을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시장〉

## 보험 가입 때 내용·특약사항 꼼꼼히 확인을

보험 가입 때에는 친절하던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갖은 이유를 들먹이며 까다롭게 군다. 그로 인해 보험사와 가입자간에 갈등이 자주 일어난다.

보험회사와 가입자간 보험금 분쟁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입자가 설계사에게 보험 가입을 맡긴 후 바쁘다며 보험상품 내용이나 특약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설계사들은 주로 바쁜 업무 때문에 보험계약 내용 같은 것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전문직 종사자들을 노린다고 한다.

▲최명연·광주시 서구 유촌동

보통 보험 계약자들은 보험회사를 보고 계약 한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것은 사기’라며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즉 보험회사와 상관없는 대리점 차원의 일이라고 밟밟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보험회사를 믿고 가입한 가입자들을 속이는 무책임한 일 아닌가.

보험당국은 일반 계약자가 이같은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피해를 우선 해결해주도록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拭拭이에서도 방송했는데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쌀을 주식으로 삼았다.

밀가루와 뱀을 주식으로 하는 서양인들이 왜 쌀을 선택했을까?

쌀은 오랜 기간 썩지 않고 부피가 크지 않아 냉장고 등에 있는 오지에서 보관하기에 좋다.

또 쌀의 탄수화물은 쉽고 삭막한 오지생활에서 힘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이다.

우리만 쌀의 효능과 건강성을 모르는 듯 해서 안타깝다.

▲이종연·곡성군 석곡면 양천리

## 시설

## 광주과기원 학사과정 개설 재추진해야

지난 2월 말 국회 통과 무산으로 좌절됐던 광주과기원 학사과정 개설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과기원 학사과정은 광주의 R&D 특구 조성, 전남의 서남권 과학 인프라 강화 등 지역 현안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역

육수사업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광주과기원 학사과정 개설이 무산된 것은 특정지역의 정치논리 때문이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한나라당이 광주과기원법과 연동해 제출한 대구·경북과기원법에 대한 심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KAIST가 소재한 대전·충청권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주 원인이다. 정치권의 지역 이기주의에 광주과기원 학사과정 설립이 혼생된 것이다.

광주과기원은 1995년 개원 이후 지난 2006년까지 12년 연속 교수 1인당 논문 발표 수 1위를 차지했다. 또 최근 치러진 전국 중 1 진단평가에서 광주가 타 시도에 비해 월등한 수준을 나타냈고

## 정책 실종된 광주·전남 총선 안타깝다

총선이 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당이나 후보간 정책 및 공약 대결이 실종됐다고 한다. 광주·전남 곳곳에 현수막이 나붙고 선거운동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정책이나 선거 이슈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드러내고 있어 안타깝다.

광주·전남 후보자들의 공약은 부실하기 짙어 없다. 구체적 투자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뜬구름 잡기식 공약을 내놓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 발표한 개발계획과 사업 등도 포함돼 있다. 상당수 후보들이 정책 개발에는 소홀한 채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 및 공약 대결이 실종된 것은 정당의 책임이 크다. 각 정당은 계파간 갈등 등 공천 파동으로 후보등록일이 임박해서야 지역구 공천자를 확정했다. 후보들이 정책을 개발하고 구체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중앙당이 발표한 총선 공약도 지역과는 관계가 없는 총론적 성격이 대부분이다.

유권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출마한 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등 검증 기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후보의 면면과 정책을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정책과 비전도 없이 표만을 호소하는 후보들은 투표를 통해 냉정하게 심판해야 한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 모두 ‘당선’이라는 목표하에 결승선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이 지역 평균 경쟁률은 4.65대 1로

지난 총선 때보다 약간 높다. 참여 정당은 무려 17개나 된다.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후보 난립 현상을 바라보면서 ‘워비곤 호수 효과’가 떠오르는 건 와일까. 옆에서 보면 결과가 뻔한데 당사자들은 당선의 확

신을 갖고 덤프된다. 그러면서 뭘 만한 이유들만 품아나간다.

워비곤호수 효과는 결국 자신에 대한 아부인 것 같다. 이번 총선도 부풀려진 기대 속에 한껏 달궈졌다가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를 남겨놓고 싸늘하게 식어갈 것이다.

이런 인간 본성은 오늘날에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 특히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 자신을 더욱 과신한다. 복권가게

김우성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 無等鼓

사람들의 심리를 묘사한 이론 중에

‘워비곤호수 효과’라는 게 있다. 워비곤호수는 풍자 소설가 캐리슨 케일러의 작품에 나오는 가상의 마을이다. 소설 속이 마을 여자들은 힘 세고 남자들은 잘 생겼으며 아이들은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를 입증할 근거는 없다. 다만 스스로 평균 이하라고 생각하는 게 유쾌하지 않기 때문이다.

평균 이상이라고 단정하며 기쁨을 얻으려 한다는 거다. 심리학자 톰 길로비치가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소설 속, 마을 이름을 따 부르기 시작하면서 탄생했다.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도 200년 전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볼 가능성이 과대 평가하고, 손해 볼 가능성은 과소 평가한다”고 이런 효과를 설명한다. 자신의 능력과 행운을 지나치게 부풀리려 든다는 것이다.

이런 인간 본성은 오늘날에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 특히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 자신을 더욱 과신한다. 복권가게

김우성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拭拭이



## 봄잠은 무죄



다. 그러다 밥을 주면 하겁지겁 먹고서 그제야 편안히 휴식에 들어갈 수 있다.

봄은 하마뿐 아니라 사자나 호랑이 같은 대부분의 고양이과 동물들을 잡꾸러기로 만들고 곰들 역시 보통 축축 늘어져서 아주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잠을 청한다.

관람객들의 원성이 대단해도 사설 동물들의 봄잠은 사람들의 춤곡과 더불어 생체리듬의 부조화에서 오는 일종의 생체 적응 과정이다.

갑자기 많은 양의 햇빛은 물에서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일종의 자기방어 기전이 작동해 몸을 자꾸 잠의 세계로 이끄는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태양과 친해질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at@hanmail.net

## 쌀 효능·건강성 홍보로 소비 촉진해야

쌀 소비량이 날로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평균 76.9kg이었다. 이는 2006년 78.8kg보다 2.4% 줄어든 수치다. 하루 평균 210.9g으로 밥공기로 따지면 20kg 기준으로 쌀을 섭취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청소에 물 두하다가 깜박 먹이를 주는 걸 잊어버렸을 때는 입으로 문을 두드리고 꽂아 소리를 지르고 그야말로 난리가 난다.

보릿고개 시절에는 먹을 쌀이 없었지만, 이제는 쌀이 넘치는데 다른 먹을거리들이 많이 오히려 쌀 소비가 줄어나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2년 전 미국 CBS에서 방송한 아프리카와 아마존 등 오지에서 40일간 체험을 다룬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있었다. 우리나라 케이

## 光州日報

회장 許宰皓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禪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榮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www.kwangju.co.kr

편집국내부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면 접 부 2200-629 문화생활부